

2017학년도 온라인 모의논술 예시답안(인문·체능계)

논제 I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과정은 자기를 개발하는 다양한 경로를 거치게 된다. 제시문 [가]는 타국의 여신으로 분하여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 같은 화려하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무대를 지배한 한 무용수의 춤에 도취되어, 송두리째 영혼을 빼앗기고 앞으로 걸어가게 될 인생의 길을 숙명적으로 맞닥뜨리게 된 화자의 흥분과 감동을 묘사하고 있다. 엄격한 종교적 규율에 기반한 가정의 법도에 순종하며 평범한 삶을 살아오던 화자에게, 그날 목도했던 공연은 내면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충격이었을 뿐 아니라 본인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운명적 순간이기도 했다. 제시문 [나]는 파종한 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변화의 조짐이 없으나 몇 해가 바뀌고 난 다음에야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는 한 대나무 종과, 섭씨 100도라는 임계점에 도달한 이후에도 수증기로 변환되기 위해서 지속적인 가열을 필요로 하는 물의 예를 들며,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진전을 향한 의지를 굽히지 말아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데에는, 기다림과 인내를 통하여 내적 역량을 축적하는 시간이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다. [가]는 재능과 적성을 우선적으로 조우하는 것이 열정적인 삶을 시작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암시하고 있는 반면, [나]는 단념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 결국 삶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700자)

논제 II

제시문 [바]는 공부가 시험과 경쟁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 현실 세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학문하는 태도의 본질을 되새기고 있는 글이다. 글쓴이에 따르면, 공부는 세상 속에 뿌리 내리면서 마음을 닦는 수행이다. 이는 현실의 다양한 사람들과 호흡하면서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과정이자,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새롭게 자신을 발견하는 즐거움이다.

제시문 [다]는 아우슈비츠 나치 수용소의 절망적 상황을 예로 들어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삶의 태도를 비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글쓴이는 허황된 낙관주의와 근거 없는 비관주의를 경계하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안에서 최대한의 의미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삶 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마음을 향해 내면을 닦는 제시문 [바]의 삶의 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제시문 [라]의 화자는 일체의 감정과 외부의 변화에도 움직이지 않는 현실 초극의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시인은 삶의 온갖 감정에 흔들리는 나약한 모습을 경계하면서 내면적 단련을 통해 본질적 삶을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적 경지는 제시문 [바]에 제시된 학문하는 태도의 본질, 즉 마음을 닦는 수행을 통해 새로운 자기를 만나는 과정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시문 [바]가 세상 속에 뿌리 내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호흡하면서 자신을 발견하는 학문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면, 제시문 [라]는 일체의 세속적 감정을 초월하는 정신적 경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마]는 소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현대인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는 글이다. 글쓴이는 시대의 흐름이나 세태를 대변하는 듯이 보이는 현대인의 소비 생활이 사실은 아무런 자기 만족감도 주지 못하는 가상의 충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제시문 [바]에 제시된 세상 속에 뿌리 내리면서 마음을 닦는 공부의 과정에서 바라 볼 때, 현실의 본질보다는 표면적 의미에 집착함으로써 스스로의 욕구나 욕망을 주체적으로 성찰하지 못하는 태도라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1,032자)